

# 와카야마의 메리트

이유영  
교환유학생 한국

와카야마에 온지도 두 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까지도 두 달 남짓 남았다. 무턱대고 온 교환학생이었기에 처음에는 막막한 한 학기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반이나 지난 것을 보면 ‘한 학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한국의 집과 가깝기 때문에 종종 왔던 오사카를 생각하고 와카야마에 왔기 때문에 그만큼 놀란 것도 많았고 느낀 것도 많았다. 그래서 이번 작문 콩쿠르를 기회로 와카야마에 와서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처음 와카야마에 왔을 때 놀랐던 것은 비가 굉장히 자주 온다는 것이었다. 내가 살던 한국의 김해라는 곳은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비가 오지 않던 지역이라, 와카야마의 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놀랐던 것 같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비가 올 때만 맡을 수 있는 흙냄새, 풀냄새에 익숙해지고 비가 올 때만 느낄 수 있는 와카야마 특유의 일본 감성이 느껴지는 거리덕분에 비오는 날의 풍경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마 한국에 돌아가서도 와카야마의 비오는 날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꽤 놀랐던 것은 교통이 생각보다 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편이 없다. 뿐만 아니라, 버스와 전철을 타서 환승을 하고도 학교까지 많이 걸어가야 했다. 처음에는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내가 사는 곳인 김해라는 지역 또한 교통이 잘 되어있지는 않지만 내가 다니는 대학이 있는 대구라는 지역은 교통이 매우 잘 되어있기 때문인지 와카야마의 교통을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하루에 두 시간 정도를 바깥 풍경을 보고 노래도 들으며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생각에 지금은 이것 또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유를 느끼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본의 버스와 전철이라니! 굉장하다! 그리고 교통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지 와카야마 사람들은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탄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탈 일이 잘 없는 데에 비해 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나도 배워보고 싶단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는 몇 번을 시도해도 절대 타지지 않던 자전거가 일본에서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었다. 그 만큼 간절했기 때문일까? 자전거 또한 와카야마의 교통 특성 덕분에 얻어가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와카야마에서 가장 놀랐지만 가장 기뻐던 것은 와카야마 사람들의 친절함과 다정함이다. 와카야마 특성상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 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먼저 다가와준 와카야마대학 친구들 덕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확신한다. 외국인이라 먼저 다가와주기도 쉽지 않았을 텐

데 한국을 좋아한다며 먼저 다가와준 여러 명의 일본인 친구 덕분이다. 기본적인 일상 회화조차 안 됐었던 내가 이제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실력으로 일본인 친구들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타지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본 것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들 덕분이다. 문득 들었던 생각은 ‘나도 한국의 대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었었나’ 였다.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을 봐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와카야마 대학 친구들의 친절함 덕분에 기쁜 동시에 지난날들을 반성할 계기도 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만큼 크게 감동받은 적도 없었다.

따라서 와카야마의 여러 가지 메리트 덕분에 반년의 교환학생이 끝난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용하지만 힐링이 되는 지역이 바로 ‘와카야마’ 라고 생각한다.